

한덕수 대선 출마설... 최상목, 韓·美 관세협상 선봉장 서나

한 총리실 비서실장 사직서 제출
최 부총리, 한달간 대행직 메울 듯
한·미협상 일사천리 진행도 가능

향후 양국간 실무협의 예정에
산업부문별 주고받기 등도 권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간 관세협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한 대행의 6·3대선 출마 여부를 둘러싼 퍼즐이 꽤 맞춰지고 있다. 그의 거취 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만약 한 대행이 공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넘겨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에 오른 바 있다.

이후 최 부총리는 3월24일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안 기각 결정에 따라 대행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제 한 달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다시 맡게 될 운명에 놓였다.

출마가 가능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4일이다. 한 대행이 그 이전에 사퇴하면 최 부총리가 6월3일까지 한 달간 그

자리를 메운다. 문제는 지난 24일 시작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주 1회차 양자 간 협상을 위해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 다녀왔다.

한 대행의 대선전 합류 시 최 부총리가

모든 권한을 쥐게 된다. 대행직에 더해 본래의 기재부 장관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그는 최종 합의는 새 정부로 넘기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펴왔다. 향후 이 같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협상에 임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단 양국 재무장관 간 회동을 마쳤고 향후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다. 대행직 수행이 현실화할 시 산업 부문별 주고받기에 대한 승인 권한을 최 부총리가 줘야 한다. 테이블에 오른 의제와는 별도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도 그가 결정 내리게 된다.

이날 보도된 한 대행의 외신 인터뷰가 아울러 주목받고 있다. 한 대행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미군의 주둔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어떤 문제든

상대와의 충돌을 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4월20일 치에도 한 대행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그때도 이번에도 그는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제는 정치권도, 다수 국민도 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시선을 넘어 대권 도전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의 출마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만 ‘한 총리가 출마할 시 이에 대해 평가해 달라’라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이른바 ‘대행의 대행’이 국정 운영을 맡는 상황이 반복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韓·美, 7월 패키지 공감대 이번주 작업반 구성 완료”

산업부 ‘2+2 대미 통상협의’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한미 통상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의 틀이 내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2 대미 통상협의’ 방미 결과를 밝혔다.

“차주부터 본격 작업반 회의 개시
비관세 포함 6개 내외 구성될 듯”

6월3일 조기대선·정부교체 예정에
“대선 전 의사결정 없을 것” 못 박아

박 차관은 “(방미중)미측과의 협의에서 산업부와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7월8일 협상 시한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7월 일괄타결)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번 주 중에 기술협의를 개시하고, 주 중후반 기술협의를 통해 작업반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차주부터 본격적인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작업반은 미측과 협의를 거쳐 비관세를 포함해 6개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술협의에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총괄을 맡고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하게 된다.

그리어 미국 USTR 대표가 APEC 통상장관회의(5월 15~16일) 참석차 방한하는 5월 중순에는 장관급 협의가 이어지며, 작업반 구성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 차관은 “그리어 USTR 대표 방한

계획에 장관급 협의를 통해 각 작업반별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는 AP EC을 넘어서 관세 협상의 큰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협의를 통해 협의의 윤곽이 확정되고 통상조약법 절차 이행의 필요가 생기면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협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6월 3일 조기대선과 정부 교체가 예정된 만큼 대선 전 협상의 제 등 의사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차관은 “줄라이 패키지는 종합적으로 답한다는 의미로 이혼상 5월말 또는 6월초에 의사 결정이 끝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형화된 협상이 아니라 비정형화된 협상이라 틀을 짜는 것도 오래 걸린다”며 “협상을 어떻게 끌어낼 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타이탄 스케줄로 일정을 소화하는 것 만으로도 70일만에 결실을 맺기에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양국 관심 사항이 명확하고 의견이 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이를 감안해서 무시하지 않겠다”며 “다음 정부가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있어서 현 정부가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경제안보 아젠다와 관련해 대중국 제재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특정국을 대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동맹국 동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간디 솔리스티안토 전 주한인도네시아 대사(앞줄 왼쪽 일곱번째부터), 체첸 헤리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내정자, 신타 캅타니 인니경총(APIN DO) 회장, 토도투아 파사리부 투자부 차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수덕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대리,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성김 현대차 사장 등 한-인니 주요 관계자들이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랑렐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동빈 “韓 경제계, 신재생에너지 등 인니 기업과 협력”

한경협, 인니 신정부와 협력 모색
신동빈 단장으로 ‘민간 사절단’ 파견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규모 FDI
대규모 석화단지, 1.4만명 직접고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규모 민간사절단이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신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신정부와 한국 재계와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28, 29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에 민간 사절단을 파견했다. 민간 차원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프라보워 정부(지난해 10월 출범)와 첫 공식교류다.

이번 사절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부장, 성김 현대차 사장, SK플라즈마 김승주 사장, 천성래 포스코홀딩스 본부장,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이현 삼성전자 부사장, 허진수 SPC그룹 사장 등 인도네시아 진출 주요 기업의 고위급 기업인 24인이 참여했다.

사절단 단장인 신동빈 회장은 28일 자카르타 메르데카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주최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계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중점 육성 중인 다운스트림 산업,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의 현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언급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사례로, 약 1만4000개의 직접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사절단 기업들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총 270조 루피아(약 23조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했으며, 첨단제조업,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롯데쇼핑은 유통, 현대차는 전기차 생태계, 한화손해보험은 금융, KCC글라스는 유리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준비 중이다. 이외에 종근당(제약), HD현대사이트솔루션(기계), SPC(식품), 메가존클라우드(AI) 등도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사절단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면담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네시아에 32%의 수입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조율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올 2월 출범한 국부펀드 ‘다난타라’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다난타라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펀드로,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약 28조 6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 사절단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인프라·에너지·배터리 등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보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사절단을 통해 프라보워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니경총과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경협은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